社 說

대학의 지식 '훔쳐가는' 사람 되길

—95학년도 새내기들에게

싱그러운 눈매, 뽀얀 뺨, 초롱초롱한 눈망울, 튀든지 옷으려고 준비된 듯한 입가, 도발적인 듯하면서도 수줍은 몸짓, 알고자 하는 욕구로 충만된 자세, 모두 새롭게 경희의 터를 아로새기는 새내기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이제 이들은 입학식을 끝내고, 한의대 앞뜰에서부터 도서관 앞 벤취를 거쳐, 사범대학 오솔길에 이르기까지 '하하 호호' 서로들 인사하고, '꾸벅꾸벅'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인사 올리기에 바쁘다.

아, 좋다. 이들이 있어 봄이 있으며, 이들이 있어 학교는 새롭다. 해마다 맞이하는 신입생이건만, 올해도 또한 더욱 좋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배움터의 주인공이 되다가, 차후 또한 경희의 이름을 빛낼 주역이 될 터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직원들과 선배들은 이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끌고 도와서 그들의 꿈을 오롯이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꿈이란 것이 워낙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담긴 것이라, 주변에서 평상스럽게 던지는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쉬운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역시 신입생들도 준비하고 마음을 다 잡아야 할 점들도 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숙지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대학주보는 또 대학주보대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이 많다. 그 가운데 두가지 유의사항만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과 여러분은 계약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웬 낭만스럽지 못한 계약관계인가 하겠지만, 실로 여러분들이 교내외 귀빈들과 총장님을 모시고 입학식에서 신입생 서약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계약행위였다. 즉 여러분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액수의 돈을 내고, 학교가 요구하는 학적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여러분들은 교수님들께 수업을 받고 그 수업에 대해 부족함이 있을 때는 총장을 위시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그 예비적 조치가 교수평가제이다. 우리 학교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자율(自律)이다.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겠거니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이들도 '원칙적으로'는 없다. 스스로 찾아서 목표잡고, 스스로 정겨서 닦아가는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몸에 익히는 사람이 대학의 자산을 많이 '훔쳐가는' 사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경희의 터에 서게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희의 이름으로 더욱 분발해야 함을 다짐하기 바란다. 짧은 시간에 이룩한 경희의 역사는 누누히 들었으리라 여겨 중언부언하지 않겠지만, 우리 대학은 젊은 대학이어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다듬학교발전의 역사로 아로새겨진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는 것이다. 마치 할리우드에 스타들의 손도장을 찍는 자리마냥 경희의 스타자리에는 아직 많은 공간이 남겨져 있는 것이다. 아마 국민학교로부터 여태까지 학교라는 집단을 여러분의 손으로 선택하기는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그 선택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의 노력 그 자체가 학교 발전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 화창한 봄날 만큼이나 아름다운 신입생 여러분을 만나 더없이 반갑다는 말을 전하면서, 끝으로 대학주보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학생 배려하는 세심한 학사관리를…

늘 그렇듯이 신학기는 설레임과 기대속에서 시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강 첫날부터 학생들의 얼굴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심지어 볼멘 소리를 여과하지 않은 채 내뱉는 모습조차 왕왕 눈에 띄기도 한다.

수원배움터의 강의시간 조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종전에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하던 1교시 수업시간을 9시로 30분 앞당기어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려기 지각을 야기하게 되었다. 게다가 첫 수업인 탓에 교과과정의 소개 등으로 간단하게 수업을 마친 과목의 경우 동교하여 보니 수업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 한다.

우리는 이번 강의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의 무성의한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30분 당겨진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공지조차 없었다고 하는 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지난 해에 비해 별로 나아진 바가 없는 교통사정을 생각해보면 스쿨버스를 증차한 것도 아니고 타교통수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 역시 아니다. 결국 강의시간이 빨라진 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생겼다.

강남—학교간 스쿨버스 배정시간표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다시말해 1교시 수업에 도착하기 위한 출발가능 시간대에 배차되는 차량수는 대략 4대에서 5대이다. 입석을 합해 대당 60여명 정도의 수용인원이고 보면 3백명이상을 수송할 수 없다. 타교통수단과 수원통학을 합해도 4백명선에 머무른다. 결국 이 인원만이 1교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통학하는 비율이 80%에 가까운 우리학교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오전 시간 30분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래서 로학과는 자체적으로 30분을 늦춰 1교시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상의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측의 대책없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에 있다. 지난 방학동안 등록금 고지서와 성적표를 이미 가정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통보가 없었음은 물론 개강 당일까지 강사들조차 강의시간변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야 어찌됐던 개강이 되어서야 시작하는 학교공사는 물론이고 어쩌면 사소할 수조차 있는 일에서도 우리는 안일하고 앞뒤 고려없는 학교의 처사에 대해 우려와 염려를 금할 수 없다.

"한은법 개정안" 정부예속 강화

정부의 화폐발행권 소유는 악용될 소지 높아

중앙은행 독립성, 사회주의 국가보다 약한 상태

사론

이 대 영
(경실련 정책연구부장)

우리 경제의 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인 중앙은행 독립 문제가 재경경제원의 독선과 밀어붙이기식 작업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20일 '중앙은행제도의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방안을 발표한 후 닷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국회에 상정시켰다.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무시되고 재경원의 전횡으로 처리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구조를 타파하는데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 명목으로 통화량을 남발해 온 결과 '고금리—고물가'현상이 지속돼 왔으며, 서민들은 노동의 댓가중 많은 부분을 인플레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잠식당해 왔다. 이 인플레라는 악성 바이러스는 토지 및 생산요소를 소유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도 물가 오름세를 따라잡지 못하자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부동산투기 열풍 역시 만성적인 인플레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통화가치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인플레 구조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성장도 분배의 정의도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 특히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는 인플레와 함께 기업에 대한 특혜 금융지원이 일반화 돼 왔으나 이제 더이상 특혜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조차 악성 인플레의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특히 외국의 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시대에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쟁에서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다.

재경원 독주 막아야

미 하버드대학의 알레시나(Alecsina)교수가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독립과 물가상승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에 세계은행(IBRD)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도는 조사대상 국가 71개국 중에서 64위이며,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보고서에서는 41개국 중에서 40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아프리카의 후진국,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더 낮은 상태이다. 세계화를 주장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여 선진국임을 인정받겠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중앙은행의 독립 필요성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룡부서가 된 재정경제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취지는 세계화에 필요한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지만 강한 서비스체제의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통화정책의 정치적 회생을 막고 경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앙은행 독립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중앙은행 독립을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줄을 놓을 수 없다는 관료주의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출범한 재경원으로 예산·세제·금융정책의 3대 축을 장악하여 경제운영의 전권을 장악한 최대의 권력부로 등장하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관장하고 재무부가 세제 및 금융정책을 관장하던 체제에 비해 경제의 정치적 운영이 훨씬 용이해진 상태다.

사실 어느 정부이건 정치적 요구에 의한 재정과 금융의 팽창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국민저항이 큰 조세보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화의 정치적 중립을 억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발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경제적 희생은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예속됨으로써 어느나라보다도 심각한 국민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중앙은행이 권력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면서 경제는 기득권층의 먹이 희생물로서 피해가 컸다. 경제가 불가와 투기의 구조적 악순환에 휘말려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로인해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지고 사회적 일탈행위를 가져오므로써 우리 사회는 붕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충발된 통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반사상태가 되었는데 이에따라 산업구조의 저변이 취약해져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한국은행법 개정에 반발하는 한은직원들 모습.

한은법 개정안의 허상

먼저 재경원 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핏보면 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는 현재의 체제에 비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은행을 금통위의 하부기관화하여 중앙은행의 위상이 지금보다도 더욱 약화되는 결과다. 중앙은행의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 방식에서 재경원 안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재경원의 안은 금통위원 9인 중 재경원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외에 재경원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등 정부 5개부처 장관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고 금융기관에서 3인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돼 있다. 즉 정부 입김하에 들 수 있는 금통위원의 수를 최소 3분의 2 이상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금통위가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하지 못하고 종래와 같이 자동통과시키는 거수기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재경원과의 정책협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온존시키는 등 금통위가 재경원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못하게 할 이중, 삼중의 장치까지 마련해 놓은 것은 재경원이 한국은행을 독립시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분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독립 요구를 정부가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재경원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게 돼 그 존재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공중분해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결정, 집행, 감독 등 세가지 기능이 골간이다. 재경원의 안대로 의사결정은 금통위에 맡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을 신설해 여기에 맡긴다면 중앙은행의 기능은 공중분해된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도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경영이 부실해져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지급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자금의 최종적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다.

한국은행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통합하는 금융자산은 전체의 5분이 1밖에 안돼 한국은행에 과도하게 힘이 집중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은행은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집행부, 감독기능을 갖는 은행감독원을 내부기구로 하는 독립적인 유기체로 구성돼야 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학계, 시민운동 단체 등의 주장에 정부는 겸허히 귀를 기울여 한국은행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설마 이러기야…"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한라공조가 대학생 여러분들의 "토론마당"을 마련했습니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도전과 실험정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한라공조는 언제나 젊고 참신한 대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라공조는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기계와 미국 FORD자동차와의 합작회사로서 1986년 설립이래 자동차용 에어컨, 라디에타 및 컴프레서등의 공조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10대 공조회사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대에 세계 정상을 목표로 새로운 인재양성과 신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라공조는 2000년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상과 꿈, 그리고 예측과 새로운 문제해결방법 등 미래의 기업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모집합니다.

젊은이들의 토론과 공감의 장이 될 "토론마당"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은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론마당" 안내

- ■ 모집주제 : ● 2000년대 인재상과 인재육성방안
  ● 기업과 대학간의 신학협동화 바람직한 형태
  ● 기타 미래사회의 기업과 대학에 관련된 창의적인 소재
- ■ 응모자격 :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 원고마감 : 1995년 4월 22일(22일 우편소인 유효)
- ■ 시 상 : 최우수작 1편 100만원, 우수작 2편 각 50만원
- ■ 발 표 : 당선자 개별통지및 5월 대학지에 게재
- ■ 보 낼 곳 : (우)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0(만도빌딩 5층) 한라공조(주) 기획실 홍보담당자앞
- ■ 기 타 : ● 참가대학생전원은 당사소정제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전화(0343)50-6994로 문의바랍니다.
  ● 우수작 원고는 5월,9월,10월 각 14개 대학신문에 게재 예정이며 채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내실때는 성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 재학중명서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HALLA 漢拏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리레미콘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마이티정보통신 · 한라제지 · 배달학원